

건강 칼럼

국가지원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꼭 하길

최 근 일반인들에게 자궁경부암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NIP(국가예방접종사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포함돼 6월부터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는 등 정부에서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3311명에서 2014년 3178명으로 자궁경부암 발병 원인은 꾸준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매년 자궁경부암 발병환자 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 자궁경부암 진단 계인 상피내병변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기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질내 출혈이나 요통, 분비물 증가, 악취 등 여성들에게 열증이나 생리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간과하는 경향이 크다.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검사방법



남계연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

은 국가 암 무료검진인 세포검사가 있다. 세포검사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해 이를 염색 후 판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암이나 세포의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정확도가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액상)세포검사만으로 안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검사로서 텔레썬비코(자궁경부확대활영검사)가 있다. 특수장비를 사용해 자궁경부의 모습을 최대 50배까지 확대 촬영하는 형태학적인 검사다.

촬영된 영상은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국제판독면허를 받은 대학병원 부인종양전문의교수에 의해 자궁경부암 유무가 판독되며 엔티엘의료재단에서 검사서비스를 하고 있다. 결과는 검사 후 최대 2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Oncology Reports에 발표된 논문 따르면, 텔레썬비코(자궁경부확대활영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단독검사 시 94.3%, 세포검사와 병용 시 98.1%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 외에 HPV(인유두종바이러스)

DNA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방법도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환자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환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자궁경부 확대촬영사진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판독자와 의료기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꾸준하고 정확한 조기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제언

주간 전조등 켜면 교통사고 예방에 좋아

매년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그만큼 사고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교통질서부터 바로 세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낮에도 주행중인 차량의 전조등을 켜는 것, 바로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습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간 전조등 점등율은 22.9%에 불과,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하면 미비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 (72년), 스웨덴 (77년), 노르웨이 (85년), 캐나다 (89년) 등 북유럽 국가들은 조기 법제화 하여 교통사고가 11~25% 감소하였고, EU는 '92년 주간 주행등 규정 제정, 11년부터 유럽전역 의무 장착하여 3~5%의 교통사고가 감소, 미국은 주간 주행등 설치 권장 이후 운전자 주의력이 2배 상승하는 효과와 더불어 차종별로 5~44% 감소하는 등 외국의 실천 사례를 보면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보통 운전자들이 주간 전조등 켜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초보운전자로 오해를 받거나 불빛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연료 및 배터

리 소비량 때문이다. 주간 전조등을 켜는 경우 연료는 시속 60km/h로 50km 주행 시 약 0.1L(130원) 추가 소모되므로 연료의 소모량은 미비하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전기에 전기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으므로 배터리 소모량에는 영향을 주는 않는다.

주간 전조등 켜면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력·식별력이 2배 이상의 상승하여 시속 상관없이 최소 10m 이상의 거리에서 위험을 먼저 인식 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차량 인식률을 2배 이상 높여주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좁은 운전 및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전북경찰청에서는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가 주간 전조등을 켜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간 전조등 켜기도 아주 작은 운전 습관이지만 시민 한명, 도민 한명, 나아가 국민 한명 한명이 힘을 모아 실천 한다면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은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 경장

독자제언

'질은선풍'은 음주운전하는 것과 위험 비슷

일찍 찾아온 더위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요즘 자외선을 차단하고 냉방효과를 높이며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에 질은 선풍을 하는 차량이 많다.

아전에 70%투과율로 앞 유리를 질게 선풍한 차량은 폭우가 쏟아지는날 와이퍼를 켜지 않고 달리는 것만큼 위험하고, 소주병에서 한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혈중알콜농도 0.05%인 운전자는 시속80km로 운전하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운전자보다 약8m를 더움직이며, 이는 차량 앞

우리 가시광선투과율이 70%~32%로 떨어졌을때와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은선풍을 하면 창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어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는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선풍사고 위험은 차량내부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납치 같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선풍은 농도는 10미터 안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의 얼굴 윤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권혁구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북도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한 '전북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그 행사의 자리가 좁은이들로 인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있는 기성세대라면 1층과 2층에 빈좌석이 없이 초만원으로 이룬 젊은이들에게서 취업 열망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한 그 취업설명회의 자리는 두고 두고 어떤 교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가 국토부와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마음을 쓰고는 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끝대로 믿음이 가지 않는 구석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니 말이다. 정규직이 늘기는 고사하고 비정규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 말이다. 전북도와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에 진실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

고 비정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취직과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그 취직과 고용안정이 매년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도내 근로자 중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숫자 늘리기나 목적이 없이 초만원으로 이룬 젊은이들에게서 취업 열망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한 그 취업설명회의 자리는 두고 두고 어떤 교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가 국토부와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마음을 쓰고는 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끝대로 믿음이 가지 않는 구석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니 말이다. 정규직이 늘기는 고사하고 비정규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 말이다. 전북도와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에 진실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

전북의 인구 감소 전국 최고 수준

전북의 인구 감소가 전국 최고라는 보고이다. 그것도 통계 집계 50년만의 기록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다. 지난 4개월새 2천720명이나 줄었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는 몰랐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금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하고, 비정규 직장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도내 실제 거주 인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보도를 보면 현재 186만 명선이 위태위태하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렇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도내 거주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하향 교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의 인구가 줄고 있음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라면 서울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테지만 그쪽은 성격이 다르다. 그쪽은 전세난을 피하여 인천 광역시나 인근 경기도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도내 인구가 줄고 있는 중에 농촌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믿겨 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내 전체 29세 이하 젊은이의 인구 비율이 18%대를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젊은 이들이 줄고 있는데 늙은이들만 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해마다 출항하는 젊은이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 186만명 선을 어떻게 해서든 고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